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현정(순천대학교 경영학과)*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2-2.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2-3.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2. 표본	
3-3. 변수의 측정	
IV. 분석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2. 가설 검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가 지닌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이 매개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은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 역량은 창업 경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동적 역량은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지니고, 창업경험을 지닌 창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창업경험의 역할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키워드 : 기술창업기업, 기업가정신, 창업경험, 운영 역량, 동적 역량, 기업 성과

* 주저자,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hkim@scnu.ac.kr

• 논문투고일 : 2021-10-15. • 수정일 : 2021-11-10. • 게재확정일 : 2021-11-30.

I. 서 론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창업을 권하고 있고 성공한 사업가 및 유니콘(unicorn)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연간 창업기업의 동향’을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창업기업은 2019년의 128만 5,259개에 비하여 15.5% 증가한 148만 4,667개였고,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업종, 30대 미만 청년 창업, 기술창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56.4%)을 중심으로 비대면 도·소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청년층 창업이 전자상거래업(56.8%), 정보통신업(11.4%)을 중심으로 약 19.1% 만큼 증가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등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이는 정부에서 창업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각종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1조 4,517억 원을 창업지원 정책에 투입하였고, 올해는 662억 원(4.6%) 증가한 1조 5,1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매일경제, 2021).

그러나 창업의 성공률을 살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창업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하므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의하면, 국내 신생기업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절반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들의 1년 생존율은 63.7%에 불과하였고, 5년 생존율은 31.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폐업한 기업들은 69만 2,000개로 약 93만 8,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인 고성장 기업은 4,449개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창업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소멸 기업의 대표자를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30대 미만인 경우가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통계청, 2020).

이와 같이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패율이 높은 것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자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양적 확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경선 · 남정민, 2020). 이를 위하여 창업기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창업 추세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비교적 쉽게 비대면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의 성공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기술창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창업자이다 (Ardichvili et al., 2003). 대부분의 기술창업기업에서는 창업자가 유일하게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특성은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성창수 · 김진수, 2011).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창업경험(startup experience), 운영 역량(operational capabilities),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Jiao et al., 2021; Marvel et al., 2020; 김아현 · 김용진, 2021; 이주연 · 박태경, 2015),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창업자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을 지니면 무조건 창업기업의 성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능력인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통하여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준다(Joseph & Park, 2015). 따라서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과정 변수로써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이 미래의 시장 수요와 기회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기업가의 속성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이 높은 창업자는 기업 운영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지닌다.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상 높은 기업가정신을 지닌 창업자는 다른 업종보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이주연 · 박태경, 2015).

또한 창업자가 이전에 창업했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창업 초기에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고 적절한 경영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에 창업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은 창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사업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Marvel et al., 2020).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창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이 마련되고 있어서 평생 한 번만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기존 연구들은 이전 창업경험 여부에 따라 처음 창업하는 최초 창업자(novice entrepreneur)와 과거에 창업한 경험이 있는 연쇄 창업자(serial entrepreneur)로 구분하여 특성 차이를 살펴왔다(Dabić et al., 2021; Westhead et al., 2005;

배영임 · 신혜리, 2019). 그 결과, 여러 선행연구들은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기업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Jiao et al., 2021; Marvel et al., 2020).

한편,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은 기업 성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운영 역량은 기업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oscoe et al., 2019). 동적 역량이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에 적합하게 기업의 자원 또는 구조를 재구성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능력이다(Teece et al., 1997). 기술창업기업이 높은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지니면,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과 역동적인 환경에의 대응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으므로, 더욱 나은 성과를 달성한다(Liu et al., 2020; Tan et al.,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이 매개변수로써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운영 역량 및 동적 역량을 통합한 연구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Covin & Slevin(1989)은 기업가정신이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성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기술적 프로세스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지닌 성향을 의미한다(Lumpkin & Dess, 2001). 위험감수성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위험한 경우에도 자원을 투입하는 성향이다(Zaleskiewicz et al., 2020). 즉, 위험감수성은 사업 리스크는 높지만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김수진 · 김종성, 2020). 진취성은 미래의 문제 및 변화 등을 예측하여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Goldsby et al., 2018). 기업가정신에서 진취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 철학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능력이다(유현경 · 남정민, 2021).

창업 환경에서는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

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요구되고 그 성과는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tayton & Mangematin, 2016). 특히,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창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반적인 창업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배홍범 외, 2018). 창업자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는 진취적인 사고를 지니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이주연 · 박태경, 2015).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목해왔다(Bierwerth et al., 2015; 김아현 · 김용진, 2021).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ierwerth et al.(2015)은 그동안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13,23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총 43개의 이전 문헌들을 메타 분석(meta analysis)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전략적 갱신(strategic renewal), 혁신(innovation), 기업 벤처(corporate venturing)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전략적 갱신, 혁신, 기업 벤처는 전체적, 주관적, 객관적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갱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는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강했고, 혁신은 저기술 산업(low-tech industries)보다 첨단기술 산업(high-tech industries)에 더욱 강한 영향을 줬으며, 기업 벤처와 성과 간의 관련성은 북미 및 아시아보다 유럽에서 강하였다. 김아현 · 김용진(2021)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의 기업가정신을 디지털 기업가정신으로 재조명하고,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수용성, 디지털적 사고, 협력성까지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수용성, 조직이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적 사고,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창업기업들의 협력성도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2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창업자가 과거에 창업을 한 경험을 지니면, 기업의 자원들을 재설계하는 능력을 학습함으로써 사업 기회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창업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겪게 되고 창업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이어간다. 이와 같이

창업경험은 창업기업 초기에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창업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부 연구자들은 창업 경험 중에서 실패한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재창업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Lee & Kim, 2019; 김나미 외, 2020). 기업실패는 경영 측면에서 경제적 실패, 재무적 실패, 기술적 지급 불능, 파산으로 구분되고, 기업실패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를 창업자 개인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김나미 외(2020)는 창업에 있어서 실패는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하지만 실패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폭넓게 연구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 효과와 재창업 교육 학습 효과가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창업 동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자가 실패 경험에서 많이 학습하거나 재창업 교육에서 많이 학습한 경우에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 지위와 같은 외재적 동기가 강한 경우에는 창업자가 이전 경험과 재교육을 통해 학습했어도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경감시켰다.

둘째, 창업경험 유무에 따라 창업자를 최초 창업자와 연쇄 창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이 창업할 경우, 기회인식과 탐색, 혁신 활동, 성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있다(Dabić et al., 2021; Westhead et al., 2005; 배영임 · 신혜리, 2019). 배영임 · 신혜리(2019)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경험을 지닌 창업자의 재창업 기업에 있어서 혁신 활동의 차이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경험은 혁신 특성인 신규자금 조달의 규모,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의 비중,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경쟁력, 지적재산권, 융복합 공동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의 지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수준에 있어 유의하게 차이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창업경험은 재창업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셋째,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일부 연구들이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김인수 · 이택구, 2018),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Stuart & Abetti, 1990). 김인수 · 이택구(2018)는 창업자의 실패경험, 정부지원사업 경험, 재창업 동기, 재창업 교육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신용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실패경험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정부지원사업 경험, 재창업 동기, 재창업 교육은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신용문제가 없는 재창업 그룹에서는 실패경험과 재창업 동기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신용문제가 있는 재창업 그룹에서는 정부지원사업 경험

과 재창업 교육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줬다. 즉, 이 연구는 신용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실패경험이 기업 성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창업경험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입증하였다. Stuart & Abetti(1990)는 뉴욕(New York) 및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있는 52개의 새로운 기술 벤처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선두 기업가(lead entrepreneur)의 신규 벤처(venture) 참여 횟수와 벤처에서 수행한 관리 역할의 수준인 창업경험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나 대기업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 경험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

운영 역량은 동일한 제품을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규모로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므로(Winter, 2003),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동적 역량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의 자원들을 융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므로, 기존 운영 역량의 한계점을 보완한다(Mikalef et al., 2020; Teece, 2014). Newey & Zahra(2009)는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구분하고, 기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가치 네트워크에서 운영 역량을 구축하고, 동적 역량을 통해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것보다 동적 역량이 더욱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Cepeda & Vera(2007)는 운영 역량은 생존하기 위한 능력이고, 동적 역량은 운영 루틴(operational routines)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한 능력이라고 분류하였다.

운영 역량은 경영 프로세스 관점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역량(technological capabilities)과 생산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역량(marketing capabilities)으로 구분된다(Mikalef et al., 2020). 기술 역량은 신제품의 연구개발이나 생산 관련한 기술개발 능력이고,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기계, 노동, 자재 취급 및 생산 순서와 같은 생산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Figueiredo, 2002; Mikalef et al., 2020). 마케팅 역량은 고객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제품을 그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유통 및 판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Mikalef et al., 2020; Pavlou & El Sawy, 2011), 경쟁적인 환경에서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다(윤정현 · 서민교, 2014). 한편, 동적 역량은 다양한 요소들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통합 역량과 재구성 역량으로 구분하였다(Borch & Madsen, 2007; Teece et al., 1997). 통합 역량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유용한 새로운 지식과 기존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재구성 역량은 기존 자원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만드는 능력을 의미한다(Borch & Madsen, 2007).

이러한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들이다.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 같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기업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창업자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인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통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Joseph & Park, 2015). 즉,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운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의 결과요인이면서(Stuart & Abetti, 1990; Teece & Al-Aali, 2013; Westhead et al., 2005; 이정민 · 김병근, 2018; 이정승 외, 2020; 전인오, 2017), 기업 성과에 대한 선행요인(Ahmed et al., 2014; Pavlou & El Sawy, 2011)이다. 이정민 · 김병근(2018)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신제품개발 운영 역량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은 신제품개발 운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진취적으로 혁신을 지향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신제품개발 운영 역량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전인오(2017)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기술혁신성을 매개로 하여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마케팅 역량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혁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략기획 역량,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운영 역량의 기술 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투자와 특허개발등록을 중심으로 신사업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기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운영 역량에 해당하는 기술혁신성은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승 외(2020)는 제조업체의 창업자의 경험과 기술 능력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가 과거에 창업한 경험을 쌓는 것은 창업기업의 성과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 연구에서 창업자의 창업경험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에 대한 실무 경험이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유의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hmed et al.(2014)은 자원기반이론과 최고경영진에 관한 문헌들에 기반하여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운영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영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모두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운영 역량이 더욱 중요하였다.

또한 동적 역량도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의 결과요인(Arend, 2014; von den Driesch et al., 2015; 안태욱 · 강태원, 2019)인 동시에 기업 성과에 대한 선행요인(Arend, 2014; Lin &

Wu, 2014; Wang et al., 2015; 안태욱·강태원, 2019)에 해당한다. 안태욱·강태원(2019)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동적 역량,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봤다. 동적 역량이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성과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동적 역량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동적 역량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Arend(2014)는 기업가정신과 동적 역량의 관계는 전략적 변화가 어떻게 기업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에 해당하는 기업가적 벤처가 역동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동적 역량이 기업 성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기업가정신을 지니고 있고 기업의 연령과 규모의 차이는 동적 역량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Lin & Wu(2014)는 대만의 상위 1,0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적 역량이 기업의 자원들을 조정하여 기업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원들이 가치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거나 대체하지 못할수록 매개 효과가 컸다. Wang et al.(2015)은 기업들이 지닌 동적 역량의 차이는 기업 성과의 차별화로 이어지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113개의 영국의 하이테크(high-tech)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동적 역량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우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동적 역량 개발 및 적용은 시장 역동성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성공 함정(success traps)과 같은 내부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성공 함정이 동적 역량에 있어서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기업 성과에 약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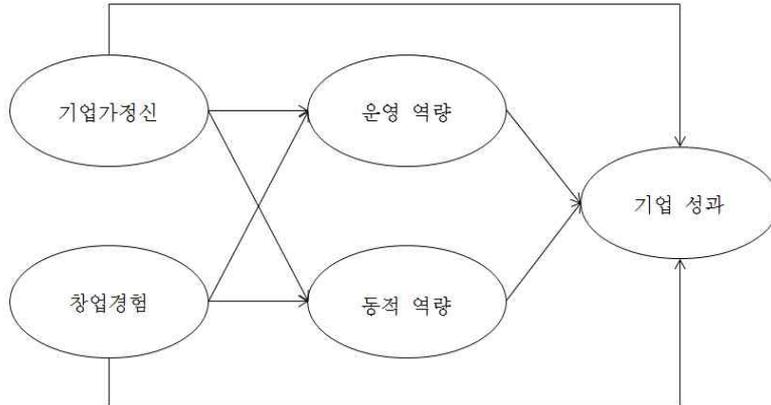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1.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창업에 있어서 창업자의 특성은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Ardichvili et al., 2003; 성장수 · 김진수, 2011),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대표적인 특성인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높은 기업가정신을 지닌 창업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위험에 대비하여 몰입을 하는 자발성을 갖추며, 능동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구체화하려는 욕구를 지니기 때문에 기업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김아현 · 김용진, 2021; 이주연 · 박태경, 2015; Bierwerth et al., 2015). 또한 창업경험을 지닌 창업자들은 해당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보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창업 초기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적절한 경영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Dabić et al., 2021; Westhead et al., 2005; 배영임 · 신혜리, 2019), 창업경험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Jiao et al., 2021; Marvel et al., 2020; Stuart & Abetti, 1990).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은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활동인 생산과 마케팅에 관한 운영 역량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적 역량으로 구분된다(Cepeda & Vera, 2007;

Newey & Zahra, 2009). 운영 역량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 역량과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역량으로 구분되고(Mikalef et al., 2020), 동적 역량은 통합 역량과 재구성 역량으로 분류된다(Borch & Madsen, 2007; Teece et al., 1997). 높은 기업가정신을 지닌 창업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취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운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Teece & Al-Aali, 2013; 이정민 · 김병근, 2018; 전인오, 2017), 기술창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Arend, 2014; 안태욱 · 강태원, 2019). 한편,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창업과 관련된 지식 또는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최초 창업자보다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하는데 유리하다(Marvel et al., 2020). 따라서 창업경험은 기업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인 운영 역량을 증가시키고(Stuart & Abetti, 1990; Westhead et al., 2005; 이정승 외, 2020),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의 자원들을 융합하고 재구성하는 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von den Driesch et al.,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기업가정신은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기업가정신은 운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기업가정신은 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경험은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창업경험은 운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창업경험은 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운영 역량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경기 호황기보다 침체기에 운영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Ahmed et al., 2014), 운영 역량이 기업 성과 중에서 신제품 개발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는(Pavlou & El Sawy, 2011) 등 세부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이 많은 운영 역량을 보유하면 더 높은 수익과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Ahmed et al., 2014; Pavlou & El Sawy, 2011). 동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기술창업처럼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큰 경우이거나 기업이 지닌 자원들이 가치있고 희소하거나 모방이나 대체 불가능할수록 더욱 크게 영향을 주는(Lin & Wu, 2014)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동적 역량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Arend, 2014; Lin & Wu, 2014; Wang et al., 2015; 안태욱 · 강태원, 2019). 이와 같은 운영 역량 및 동적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앞서 살펴봤던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

험이 각각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고려하면,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은 창업자의 특성인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운영 역량은 창업자의 특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5-1: 운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5-2: 운영 역량은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동적 역량은 창업자의 특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1: 동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2: 동적 역량은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표본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창업으로 분류하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0부를 회수하였고, 결측값이 존재하는 2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3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자들이 경영하는 평균 업력은 약 6년이었고, 이 중에서 5년 이하의 기술창업기업은 약 74.5%로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72개(47.1%)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8개(31.4%), 정보통신업 29개(19.0%) 등의 순이었다. 창업자의 약 42.5%가 1회 이상의 창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창업유형별로는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73.9%로 가장 많았다.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약 68.0%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 50대 17.0%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독립변수들, 매개변수들, 종속변수를 동일한 응답자에게 측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있는지를 Harman의 일요인 검정(single-factor test)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단일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이 27.415로 크지 않아 실제로 동일방법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odsakoff et al., 2003).

3.3 변수의 측정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발췌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참고문헌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의 특성상 창업경험은 과거에 창업했던 횟수에 관한 질문으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업경험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복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응답이고, 7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되도록 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참고문헌
기업가 정신	혁신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기술적 프로세스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지닌 성향	4개	González-Benito et al. (2009), Lumpkin & Dess(2001)
	위험감수성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위험한 경우에도 자원을 투입하는 성향	3개	González-Benito et al. (2009), Zaleskiewicz et al.(2020)
	진취성	미래의 문제 및 변화 등을 예측하여 행동하는 성향	4개	Goldsby et al.(2018), González-Benito et al. (2009)
창업경험		창업자가 과거에 창업한 횟수	1개	
운영 역량	기술 역량	신제품의 연구개발이나 생산 관련한 기술개발 능력	3개	Figueiredo(2002), Mikalef et al.(2020), Pavlou & El Sawy(2011)
	마케팅 역량	고객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제품을 그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유통 및 판촉하는 능력	3개	Mikalef et al.(2020), Pavlou & El Sawy (2011)
동적 역량	통합 역량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유용한 새로운 지식과 기존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3개	Borch & Madsen(2007), Pavlou & El Sawy(2011), Zahra & George (2002)
	재구성 역량	기존 자원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생산 자원으로 만드는 능력	3개	
기업 성과		최근 3년간 경쟁사 대비 자산 수익률, 시장 점유율, 매출액	3개	Schaltegger & Wagner(2011)

IV. 분석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인적재량이 0.7 이하이고, 다른 항목들과 높은 잔차 분산(residual variance)을 갖는 총 5개의 항목들(기업가정신 2, 기업가정신 5, 기업가정신 9, 기업가정신 10, 동적 역량 4)을 제거하였다. 남은 측정항목들은 각 척도의 문항들에 있어서 의도된 요인들에 유의적으로 적재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수정된 측정모형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df = 1.942$, GFI = 0.915, TLI = 0.937, CFI = 0.955, RMSEA = 0.016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에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량은 기준값인 0.7보다 높았으며, 내적일관성을 판단하는 Cronbach's alpha 계수 역시 권장 수준인 0.7 이상이었다.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각각 0.7과 0.5 이상이어야 하는데(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 모형에서는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의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측정모형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Alpha	CR	AVE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1	0.834	0.903	0.856	0.647
	기업가정신 3	0.825			
	기업가정신 4	0.791			
	기업가정신 6	0.825			
	기업가정신 7	0.834			
	기업가정신 8	0.739			
	기업가정신 11	0.891			
운영 역량	운영 역량 1	0.820	0.825	0.918	0.793
	운영 역량 2	0.831			
	운영 역량 3	0.917			
	운영 역량 4	0.894			
	운영 역량 5	0.801			
	운영 역량 6	0.831			

변수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Alpha	CR	AVE
동적 역량	동적 역량 1	0.864	0.894	0.894	0.715
	동적 역량 2	0.838			
	동적 역량 3	0.864			
	동적 역량 5	0.758			
	동적 역량 6	0.815			
기업 성과	기업 성과 1	0.791	0.857	0.869	0.734
	기업 성과 2	0.812			
	기업 성과 3	0.877			

<표 3>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정신	운영 역량	동적 역량	기업 성과
기업가정신	0.804			
운영 역량	0.251**	0.891		
동적 역량	0.327**	0.260**	0.846	
기업 성과	0.159*	0.348**	0.325**	0.857

4.2 가설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인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408과 1.653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많이 적용되는 Baron & Kenny (1986)의 3단계 과정을 적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역량을 크게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운영 역량 또는 동적 역량을 매개변수로 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규모와 산업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먼저, <표 4>는 운영 역량을 매개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인 기업가정신($B = 0.412, p < 0.01$)과 창업경험($B = 0.137, p < 0.05$)이 매개변수인 운영 역

량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기업가정신이 높고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운영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인 기업가정신($B = 0.355, p < 0.01$)과 창업경험($B = 0.218, p < 0.05$)이 종속변수인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즉, 기업가정신이 높고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기업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운영 역량($B = 0.429, p < 0.01$)이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3에서 기업가정신($B = 0.046, p > 0.05$)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 2에서의 기업가정신($B = 0.355, p < 0.01$)은 유의하였으나, 매개변수인 운영 역량을 투입한 모형 3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작아져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운영 역량은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full mediation)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모형 3에서 창업경험($B = 0.075, p < 0.05$)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운영 역량이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한다.

〈표 4〉 기업가정신, 창업경험-운영 역량-기업 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운영 역량	기업 성과	기업 성과
기업 규모	0.037	0.021	0.019
산업 더미 1	0.056	0.040	0.052
산업 더미 2	0.082	0.035	0.047
산업 더미 3	0.069	0.049	0.032
기업가정신	0.412**	0.355**	0.046
창업경험	0.137*	0.218*	0.075*
운영 역량			0.429**
R ²	0.584	0.473	0.620
F	29.461**	11.825**	35.459**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표 5〉는 동적 역량을 매개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인 기업가정신($B = 0.425, p < 0.01$)은 매개변수인 동적 역량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창업경험($B = 0.019, p > 0.05$)은 매개변수인 동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동적 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인 기업가정신($B = 0.358, p < 0.01$)과 창업경험($B = 0.192, p < 0.05$)이 종속변수인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기업가정신이 높고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기업 성과는 향상되었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동적 역량($B = 0.476, p$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0.01)이 기업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동적 역량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3에서 기업가정신(B = 0.048, p > 0.05)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표 4>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모형 2에서의 기업가정신(B = 0.358, p < 0.01)은 유의하였으나, 매개변수인 동적 역량을 투입한 모형 3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작아져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동적 역량은 운영 역량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full mediation)한다. 그러나 창업경험은 모형 1에서 동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동적 역량은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한다.

<표 5> 기업가정신, 창업경험-동적 역량-기업 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동적 역량	기업 성과	기업 성과
기업 규모	0.025	0.018	0.021
산업 더미 1	0.029	0.013	0.007
산업 더미 2	0.153	0.074	0.126
산업 더미 3	0.026	0.037	0.031
기업가정신	0.425**	0.358**	0.048
창업경험	0.019	0.192*	0.053*
동적 역량			0.476**
R ²	0.582	0.473	0.614
F	28.349**	12.968**	33.197**

*p < 0.05, **p < 0.01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과 가설 2는 각각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높고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기업 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주장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Bierwerth et al., 2015; Jiao et al., 2021; 김아현 · 김용진, 2021; 이주연 · 박태경, 2015).

둘째, 가설 3은 기업가정신이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을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각각 가설 3-1과 가설 3-2로 설정한 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은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도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Arend, 2014; Teece & Al-Aali, 2013; 안태욱 · 강태원, 2019; 이정민 · 김병근, 2018; 전인오, 2017).

셋째, 가설 4는 창업경험이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고, 가설 3과 마찬가지로 역량을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으로 분류한 후, 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 4-1과 가설 4-2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창업경험은 운영 역량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적 역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창업경험과 운영 역량 간의 관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하지만(Stuart & Abetti, 1990; Westhead et al., 2005; 이정승 · 임영준 · 최성우, 2020),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적 역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다르다(von den Driesch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창업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동적 역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창업경험에는 성공경험뿐만 아니라 실패경험도 포함되고, 이러한 실패경험은 창업자에게 실패가 고통스럽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김나미 외, 2020). 일반적으로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고, 경영 활동을 통하여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사건은 창업자에게 큰 트라우마(trauma)로 남을 수 있다. 창업자가 실패경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고 다음 창업에서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낮아지기도 한다(Oh & Ha, 2013).

넷째, 가설 5는 운영 역량이 창업자의 특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 5는 창업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운영 역량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5-1과 가설 5-2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운영 역량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동적 역량이 창업자의 특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6을 동적 역량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6-1과 가설 6-2로 구체화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동적 역량의 매개 효과와 관련해서는 동적 역량은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지만,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이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국한되었을 뿐(Bierwerth et al., 2015), 이러한 창업자의 특성이 어떠한 능력으로 발현되어 궁극적으로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를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보다는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을 통하여 기업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즉,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그들의 창업 활동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능력인 운영 역량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보유한 각종 자원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동적 역량을 갖추어야만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여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창업경험이 운영 역량, 동적 역량,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점에서 실무적 기여를 한다. 처음 창업을 하여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창업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창업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분석하는데 그치고(Marvel et al., 2020; Jiao et al., 2021), 이러한 창업경험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창업경험이 일상적인 루틴(routine)한 업무를 하는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지만, 혁신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동적 역량은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창업에 있어서 동적 역량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기술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운영 역량보다 동적 역량이 기업 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과거에 한 번 이상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과거의 실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의 동적 역량의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경험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함으로써, 창업경험이 동적 역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창업경험은 대부분 실패경험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창업자의 창업경험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구분하고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경험을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들로 분류하여 조사함으로써, 창업경험이 동적 역량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

로 구분하고, González & Benito(2009)와 Zaleskiewicz et al.(2020) 등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측정항목들을 발췌하였다. 그러나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에는 이러한 측정항목들이 다소 구태의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기업의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더욱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대상이 된 기술창업기업들은 주로 소기업이라서 기업 성과를 객관적인 재무 정보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소기업은 재무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된 기술창업기업들의 재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기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면, 기업가정신과 창업경험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경선·남정민(2020), 개인수준의 기업가정신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수준의 기업가정신 조절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4권 1호, 51-70.
- 김나미·이종선·김동수(2020), 기업가의 창업 실패 경험과 재교육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창업 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2호, 33-45.
- 김수진·김종성(2020),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4권 1호, 180-208.
- 김아현·김용진(2021),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경영학연구**, 제50권 1호, 1-22.
- 김인수·이택구(2018), 신용문제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3권 2호, 15-26.
- 매일경제, 정부와 지자체 올해 창업지원에 1조 5179억원 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1/7234/> (2021.01.04.).
- 배영임·신혜리(2019), 재창업 기술중소기업의 혁신특성 차이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제21권 3호, 79-97.
- 배홍범·송민경·김서균(2018), ETRI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3권 1호, 61-72.
- 성창수·김진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3호, 109-133.
- 안태욱·장태원(2019),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적 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4호, 39-49.
- 유현경·남정민(2021), 청년의 창업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아효능감 구성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5권 2호, 28-52.
- 윤정현·서민교(201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국제기업가정신,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국제화 성과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18권 3호, 137-159.
- 이정민·김병근(2018),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제품 개발 운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경영연구**, 제55권 3호, 103-131.
- 이정승·임영준·최성우(2020), 창업자의 경험과 기술 능력이 창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1호, 317-323.
- 이주연·박태경(2015), 사내 기업가정신의 선행요인과 성과: 발견이론과 창조이론 관점,

경영학연구, 제44권 5호, 1421-1444.

전인오(2017),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간 관계에서 기술혁신성과 마케팅역량의 영향, **벤처 창업연구**, 제12권 3호, 87-105.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에도 신규 창업은 역대 최대치 달성(2020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발표), 2021.

통계청,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2020.

(2) 국외문헌

Ahmed, M. U., Kristal, M. M., & Pagell, M. (2014), Impact of Operational and Marketing Capabilities o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Economic Growth and Downtur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54, 59-71.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 (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Arend, R. J. (2014), Entrepreneurship and Dynamic Capabilities: How Firm Age and Size Affect the 'Capability Enhancement-SME Performance' Relation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42(1), 33-57.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ierwerth, M., Schwens, C., Isidor, R., & Kabst, R. (2015),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A Meta-Analysis, *Small Business Economics*, 45(2), 255-278.

Borch, O. J., & Madsen, E. L. (2007), Dynamic Capabilities Facilitating Innovation Strategies i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entrepreneurship*, 1(1), 109-125.

Cepeda, G., & Vera, D. (2007), Dynamic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A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426-437.

Covin, J. G., & Slevin, D. P.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Dabić, M., Vlačić, B., Kiessling, T., Caputo, A., & Pellegrini, M. (2021), Serial

- Entrepreneurs: A Review of Literature and Guidance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36.
- Figueiredo, P. N. (2002), Does Technological Learning Pay off? Inter-Firm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Capability-Accumulation Paths and Opera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Research Policy*, 31(1), 73-9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ldsby, M. G., Kuratko, D. F., Bishop, J. W., Kreiser, P. M., & Hornsby, J. S. (2018), Social Proactiveness and Innovation: The Impact of Stakeholder Salience on Corporate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Strategy*, 28(2), 1-15.
- González-Benito, Ó., González-Benito, J., & Muñoz-Gallego, P. A. (2009),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in Firms' Succes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3(3/4), 500-522.
- Jiao, K., Ling, Y., & Kelleman, F. W. (2021), Does Prior Experience Matter?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or Experience of Entrepreneurs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48.
- Joseph, D. D., & Park, J. H. (201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SMEs in Nigeria,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18(4), 21-49.
- Lee, J., & Kim, N. (2019), The Effects of Serial Entrepreneurs' Failure Attribution on Subsequent Ventur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3), 13-26.
- Liu, Y., Ndubisi, N. O., Liu, Y., & Barrane, F. Z. (2020), New Product Development and Sustainable Performance of Chinese SMMs: The Role of Dynamic Capability and Intra-National Environmental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230, 107817.
- Lin, Y., & Wu, L. Y. (2014), Exploring the Role of Dynamic Capabilities in Firm Performance under the Resource-Based View Framework,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3), 407-413.
- Lumpkin, G. T., & Dess, G. G. (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5), 429-451.
- Marvel, M. R., Wolfe, M. T., Kuratko, D. F., & Fisher, G. (2020), Examining Entrepreneurial Experience in Relation to Pre-Launch and Post-Launch Learning Activities Affecting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27.
- Mikalef, P., Krogstie, J., Pappas, I. O., & Pavlou, P. (202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Data Analytics Capability and Competitive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s of Dynamic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Information & Management*, 57(2), 103169.
- Newey, L. R., & Zahra, S. A. (2009), The Evolving Firm: How Dynamic and Operating Capabilities Interact to Enable Entrepreneurship,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0(s1), S81-S100.
- Oh, S. H., & Ha, K. S. (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143-157.
- Pavlou, P. A., & El Sawy, O. A. (2011), Understanding the Elusive Black Box of Dynamic Capabilities, *Decision Sciences*, 42(1), 239-273.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Roscoe, S., Cousins, P. D., & Handfield, R. (2019), The Microfoundations of an Operational Capability in Digital Manufacturing,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65(8), 774-793.
- Schaltegger, S., & Wagner, M. (2011),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Innovation: Categories and Interaction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0(4), 222-237.
- Stayton, J., & Mangematin, V. (2016), Startup Time,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Emergence: A Study of USA-Based International Technology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4(3), 373-409.
- Stuart, R. W., & Abetti, P. A. (1990), 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o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151-162.
- Tan, K. C., Kannan, V. R., & Narasimhan, R. (2007), The Impact of Operations Capability on Firm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45(21), 5135-5156.

- Teece, D. J. (2014), The Foundations of Enterprise Performance: Dynamic and Ordinary Capabilities in an (Economic) Theory of Firms, *Th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8(4), 328-352.
- Teece, D. J., & Al-Aali, A. Y. (2013), Knowledge, Entrepreneurship, and Capabilities: Revising the Theory of the MNE, *Universia Business Review*, 40, 18-32.
- Teece, D. J., Pisano, G., & Shuen, A.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 von den Driesch, T., Da Costa, M. E. S., Flatten, T. C., & Brettel, M. (2015), How CEO Experience, Personality, and Network Affect Firms' Dynamic Capabilitie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3(4), 245-256.
- Wang, C. L., Senaratne, C., & Rafiq, M. (2015), Success Traps, Dynamic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6(1), 26-44.
- Westhead, P., Ucbasaran, D., & Wright, M. (2005), Decisions, Actions, and Performance: Do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s Diffe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3(4), 393-417.
- Winter, S. G. (2003), Understanding Dynamic Capabilit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0), 991-995.
- Zahra, S. A., & George, G. (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 Zaleskiewicz, T., Bernady, A., & Traczyk, J. (2020), Entrepreneurial Risk Taking Is Related to Mental Imagery: A Fresh Look at the Old Issue of Entrepreneurship and Risk, *Applied Psychology*, 69(4), 1438-1469.

<ABSTRACT>

The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xperience on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Operational and Dynamic Capabilities

Hyunjung Ki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xperience of founders on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operational and dynamic capab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xperience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operational and dynamic capabilities were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firm perform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operational capabilit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experience and firm performance, and dynamic capabilities did not mediate the effect of startup experience on firm performance.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on the direct impact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xperience on firm performance. This study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s the role of startup experience in many situations where there are many founders with practical startup experience.

Keywords : Technology-Based Start-ups, Entrepreneurship, Startup Experience,
Operational Capabilities, Dynamic Capabilities, Firm Performance

* The main author,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Sunchon National University, hkim@sncu.ac.kr